

서역에서의 법화신앙 전개
-천산남로와 양주를 중심으로-

한지연(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 I. 머리말
- II. 천산남로의 법화신앙
 - 1. 『법화경』의 문화적 발현
 - 2. 도솔왕생의 법화적 요소
- III. 양주지역의 법화신앙
 - 1. 이불병좌상의 출현
 - 2. 법화경변상도의 유행
- IV. 맺는말

한글요약

대승의 신앙형태 가운데 특히 법화신앙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광범위한 지역에서 성립·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화신앙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법화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앙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초기 불교전파 및 문화적 변용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곧 법화신앙일 것이다. 『법화경』 내에서 묘사되어지는 상당부분이 이곳 석굴 내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신앙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천산남로 상의 법화신앙을 고찰한다. 또한 지금까지 흔히 미륵계 경전을 바탕으로 얘기되고 있는 도솔왕생의 문제를 『법화경』에 입각한 미륵신앙과의 연관성 문제로 재해석하는 것을 시도해본다.

그리고 이 같은 초기 법화신앙이 지역과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가지는가에 대해 문화적 형상화에 입각해 살펴본다. 미륵보살 도상화에서 시대가 흐를수록 점차 이불병좌상이 출현하게 되고, 더불어 경변상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 내부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양상이므로 변화양상을 통해 신앙형태의 발전상을 보며, 이를 통해 신앙체계의 견고성을 더해 나아가는 초기 불교전파 및 당시 교류 상황을 짚어본다.

또한 전파경로 가운데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바로 직전 관문인 돈황 등의 지역에서 드러나는 법화신앙을 함께 다룬다. 천산남로에서 보여지는 법화신앙은 교류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수이다. 이에 대한 비교지역을 현 감숙성 지역으로 한정하며 시기 역시 중국 역사 전개에 있어 수당시대 이전까지로 한정한다. 이로써 전파 초기의 신앙형태를 법화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불교의 변용과정의 단면을 유추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법화경, 법화신앙, 이불병좌상, 미륵보살, 구자, 돈황

I. 머리말

종교라는 용어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수행자측면인지 신도의 측면인지에 따라 종교를 대하는 태도나 생각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앙적 측면을 파고든다면 아마도 신도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측면에서 진행된 부분이 더 크다 할 수 있겠다. 때문에 대승불교 흥기 이후 신앙의 전개 방식은 매우 다양화되었다. 부파불교 시대의 경직된 신앙체계에서 좀 더 자유롭고 다양화된 방식으로 전개된 대승불교의 신앙체계는 동아시아에서 더욱 발전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기존 신화 및 신앙들과 결합하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졌고,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활발한 교류의 여건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대승불교 초기에 나타난 경전 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형태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양상은 인도보다 오히려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지역에서 볼 수 있다.¹⁾

대승의 신앙형태 가운데 특히 법화신앙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광범위한 지역에서 성립·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화신앙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법화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앙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초기 불교전파 및 문화적 변용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곧 법화신앙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파과정 위치에 있는 서역의 천산남로와 현 감숙성에 위치한 둔황을 비롯한 일대의 법화신앙에 관해 전개해본다.

첫 번째로 천산남로를 대표하는 고대 오아시스 국가였던 구자국(현 신장위그르자치구 쿠차현)은 『妙法蓮華經』을 한역한 구마라집의 출신국인만큼 법화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만큼 이 지역 석굴에서 보여지고 있는 문화적 발현을 통해 신앙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화경』 내에서 묘사되어지는 상당부분이 이곳 석굴 내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신앙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천산남로 상의 법화신앙을 고찰한다. 또한 지금까지 흔히 『관경』을 바탕으로 얘기되고 있는 도솔왕생의 문제를 『법화경』에 입각한 미륵신앙과의 연관성 문제로 재해석하는 것을 시도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앙체계의 견고성을 더해 나아가는 초기 불교전파 및 당시 교류 상황을 짚어본다.

두 번째로 전파경로 가운데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바로 직전 관문인 둔황 등의 지역에서 드러나는 법화신앙을 함께 다루도록 한다. 천산남로에서 보여지는 법화신앙은 교류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수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지역을 현 감숙성 지역으로 한정하며 시기 역시 중국 역사 전개에 있어 수당시대 이전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전파 초기의 신앙형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논문을 전개해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미리 밝혀둘 점은 중앙아시아, 특히 천산남로 상의 법화신앙적 요소를 한차례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신앙형성의 비교 내용을 주로 다룬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점

1) 이와 같은 논의는 「西北印度と西域の信仰形成に現れた法華信仰的要素」, 『法華文化研究』38(立正大學 法華經文化研究所, 2012)에서 한차례 밝힌 바 있다.

부터 東晉十六國 시대까지를 ‘초전기’로, 수·당시대를 ‘발전기’로 시대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물론 이와 같은 시대구분법이 일반화된 것은 아니며, 논문 전개의 편의상 시대구분을 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천산남로의 법화신앙

서역으로 명명될 수 있는 지역에서 불교가 전해지는 루트 가운데 하나인 천산남로에는 고대 거대 오아시스 국가인 구자국이 존재했다. 구자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대략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될 수 있다.²⁾ 일찍이 불교가 전래된 구자국에서 『법화경』에 근거한 신앙형태가 존재했다는 기록 자체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법화경』의 한역화 작업과 현 쿠차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을 통해 역추적 해볼 수 있는 근거들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법화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려내어 그 특징들을 토대로 신앙의 발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구자국에 법화신앙만 존재했을 리는 없다. 구자국에서 조성된 석굴들에서는 다양한 신앙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법화신앙은 이른 시기부터 문화적으로 형상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법화경』에 근거해 발전된 양상들을 보도록 한다.

1. 『법화경』의 문화적 발현

구마라집(구마라집)이 『묘법연화경』을 5세기 초반 역출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지만, 구마라집에 의한 역출 경전 수가 방대한 만큼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구자국과 『법화경』과의 관계를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竺法護에 의해 太康7년(286) 『정법화경』번역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교정작업이 10여 년 후에 구자국 출신 帛元信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실만큼은³⁾ 구자국과 『법화경』 관련성은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의 번역 및 교정의 문제만으로 지역불교의 특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신앙의 형태는 경전의 번역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문화적 발현의 측면을 통해 지역과 법화신앙과의 관계성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구자국 지역에 형성된 석굴 내부는 수많은 불상과 벽화를 담고 있으며, 개착된 석굴의 숫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수에 이른다. 이 가운데 키질석굴을 제외한 대다수 석굴의 개착 연도가 5세기 이후이며 왕실조성의 석굴이었음을 본다면 키질석굴을 주로 다룰 수밖에 없다. 키질 석굴의 개착연도는 대략 3세기 말에서 4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⁴⁾ 키질

2)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기원전3세기부터 기원후2세기설까지 다양한 학설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 사서의 기록에 근거해 본고에서는 기원전1세기로 보고자 한다. 朱英榮, 『龜茲石窟』, 新疆大學出版社, 1990 ; 李裕君, 『古代石窟』, 2003 ; 趙莉, 『龜茲石窟』, 新疆美術攝影出版社, 2003.

3) 僧祐, 『出三藏記集』(『大正藏』56, 56c)

4) 宿白의 경우 제1단계 4세기 초~4세기 중엽, 제2단계 4세기 말~5세기 중엽, 제3단계 6세기~7세기 중기의 총 3단계로 보고 있다.(『キジル石窟の形式区分との年代』(新疆ウイグル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 中國石窟, 『キジル石窟』1, 東京, 平凡社, pp. 162~178) 이에 대해 張廣敏은 벽화 벽면 밑의 壁土 기준으로 제기되었던 宿白

석굴의 개착 시기와 대승불교 경전의 본격적인 유통 시기가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화경』의 유통시기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키질 석굴 내에 조성된 벽화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本生古事로 논해지고 있는데,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인도와는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는 서역지역에서의 석굴 군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특히 법화신앙적 요소를 거론해본다.

키질 초기석굴은 기본적으로 中心柱窟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벽면에 벽화를 등장시키고 있다. 벽화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생담을 비롯해 伎樂天, 부처님의 일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천장화로는 한가운데 天相圖를 기본으로 양측에 짐승의 모습, 본생고사, 혹은 천불⁵⁾로 장엄되고 있다.⁶⁾ 구도상의 마지막 특징은 입구 위의 아치형 공간에 교각미륵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마지막 특징에 대한 것은 도솔왕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본 특징을 지닌 초기 석굴에서 『법화경』을 형상화했다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상당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탓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벽화의 내용을 본생고사에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구자국 불교의 성향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여진다. 본생고사를 제외한 다른 표현 방식에서는 『법화경』 내용을 묘사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가루라(金翅鳥라고도 표현된다)의 표현이다. 키질 초기 석굴을 비롯해 7세기 이전의 석굴에서는 대부분 천상도가 표현되고 이 안에 4마리의 가루라가 표현되고 있다. 이는 4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약 300여 년의 기간 동안 개착된 굴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석굴명	굴 번호와 시기
키질석굴	171굴 천상도(4세기 중엽)
	38굴 천상도(5세기)
	167굴 복두형 천장 4귀통이를 각기 채움(6세기)
	신1굴 천상도(7세기)
쿠무틀라석굴	23굴 천상도(5~6세기)
키질가하석굴	16굴 천상도(6세기)

의 주장에 벽화 형성 연대를 그 보다 늦은 시기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中央アジア佛教美術とキジール石窟」(『東洋學術研究』25-2, pp. 121-123) 이밖에 霍旭初 등은 「克孜爾石窟의分期問題」에서 키질 석굴 개착 시기를 총4기로 나누어 초창기, 발전기, 번영기, 쇠락기로 보고 있으며 초창기의 경우 3세기 말~4세기 중엽으로 그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西域研究』10, pp. 58-68)

5) 천불과 관련된 부분은 『賢劫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6) 이는 기본형의 예이며 6세기 이후부터는 말각조정식 천장도 부분 나타나면서 연화문과 공명조로 장식하는 경우도 나오며 [대표적으로 키질 167굴],穹窿形 천장은 立佛과 보살을 원 안에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기도 한다. [키질의 경우 6세기에 조성된 123굴, 쿠무틀라는 5세기 조성된 20, 21굴에서 보여진다]

	11굴 천상도(6~7세기)
	46굴 천상도(6~7세기 초)

표 1 가루라관련 벽화 굴번호

구자국의 석굴이 여러 요인으로 훼손되어 현존하는 벽화의 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해본다면 7세기까지 꾸준히 4마리의 가루라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일반화된 경향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루라가 등장하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초기에 번역된 대승경전에서 가루라의 등장은 빈번하다.⁷⁾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부처님 설법에 참여하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만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루라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그 어떤 경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다른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화경』 「서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네 가루라왕이 또 있었으니, 大威德가루라왕, 大身가루라왕, 大滿가루라왕, 如意가루라왕이 각기 약간의 백천 권속들과 함께 하였다.⁸⁾

용왕이나 긴나라, 아수라에 관해서도 각기 8, 4, 4종류와 그 이름을 상세히 거론하고 있는데, 「서품」에서 한차례 언급한 이후부터는 다른 여타의 경전과 같은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루라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오로지 『법화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자국에서의 『법화경』 독송 및 이에 따른 신앙 형태가 석굴내 벽화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불상 주변의 장식물을 들 수 있다. 불상의 경우 현재는 상당수가 훼손되었고, 그 주변의 벽화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자국 석굴 벽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서 보았던 천상도의 구성뿐만 아니라 벽화 배경에 항상 꽃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키질의 초기 석굴에 해당되는 3세기 조성 굴에서도 드러나며 이후 8세기까지 꾸준히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생고사를 표현한 벽화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배경은 바로 불탑이다. 그런데 인도나 간다라와 비교했을 때, 불탑 앞에 불상이 표현되는 방식과 불탑과 불탑 사이에 불상이 표현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인도에서는 불탑 앞에 안치되는 불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구자국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위치를 지정하면서 반드시 불탑은 표현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불탑조성의 공덕이라는 점은 지극히 『법화경』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은 다른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

7) 『放光般若經』(西晉 無羅叉 譯; 『大正藏』 8, 50b), 『光讚經』(西晉 竺法護 譯; 『大正藏』 8, 197a), 『道行般若經』(後漢 支婁迦讖 譯; 『大正藏』 8, 434b), 『小品般若經』(後秦 鳩摩羅什 譯; 『大正藏』 8, 544b), 『金剛三昧經』(北涼; 『大正藏』 9, 365c), 『大方廣佛華嚴經』(東晉 佛跋陀羅 譯; 『大正藏』 9, 417b), 『大般涅槃經』(北涼 曇無讖 譯; 『大正藏』 12, 369b), 『虛空藏菩薩經』(姚秦 佛陀耶舍 譯; 『大正藏』 13, 649b), 『般若三昧經』(後漢 支婁迦讖 譯; 『大正藏』 13, 897c), 『維摩詰所說經』(後秦 鳩摩羅什 譯; 『大正藏』 14, 537b), 『首楞嚴三昧經』(後秦 鳩摩羅什 譯; 『大正藏』 15, 629b), 『佛說觀佛三昧海經』(東晉 佛跋陀羅 譯; 『大正藏』 15, 645c) 등의 초기 번역 경전에서 거의 동일하게 가루라가 등장하고 있다.

8) 구마라집 역, 『묘법연화경』 「서품」(『大正藏』 9, 2a). “有四迦樓羅王 大威德迦樓羅王 大身迦樓羅王 大滿迦樓羅王 如意迦樓羅王 各與若干百千眷屬俱”.

있다.⁹⁾ 이러한 벽화 속 불탑의 표현양식이 다양화된 점뿐만 아니라 꽃의 등장은 『법화경』 「分別功德品」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이 많은 보살마하살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때,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을 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아계신 여러 부처님 위에 흠으며, 칠보탑 속의 사자좌에 앉으신 석가모니불과 멀도하신 지 오래인 다보여래의 위에도 흠으며, 또한 모든 큰 보살대중과 사부대중에게도 흠으며...¹⁰⁾

꽃의 장식은 인도나 중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만, 구자국에서 형성된 석굴군 모두에 배경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없다. 그런데 이를 굳이 『법화경』 내에서 찾는 이유는 구자국에서 소승불교가 유행했다는 것¹¹⁾ 이외에 대승경전 가운데 특히 반야경계통과 법화경계통에 상당히 정통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¹²⁾ 때문에 이러한 장식적 부분에서 경전상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그 범위가 축소되어 반야계와 법화계 경전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석굴 벽화의 배경이 되는 부분부터 천상도에 표현되는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가 『법화경』 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성된 흔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전의 수지, 독송이라는 차원을 넘어 문화적 형상화를 통한 발원 혹은 수행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왕실이나 출가자집단뿐만 아니라 상인계층을 비롯한 여러 계층에서 석굴을 조성하고, 경전을 통해 익숙해진 부분들을 발현시킴으로써 그들의 방식대로 보살도를 행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

2. 도술왕생의 법화적 요소

도술왕생과의 밀접한 관련은 보통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하 『彌勒上生經』)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물론 도술천에 生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經律異相』의 내용¹³⁾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경율이상』에서 밝히고 있는 출처, 즉 『장아함경』 권1에서는 ‘생천’에 대한 정의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함께 언급한 『관정경』에서조차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전의 개념이 아닌 梁 시대에 편찬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도술왕생의 개념적 접근에 필요한 것 일뿐 양나라 이전시기의 신앙요소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도술왕생의 신앙적 차원은 觀經계통에서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륵상생경』의 한역 연대는 455년으로 北涼이 멸망한 후, 북량의 沮渠씨 일족이었

9) 줄고, 앞의 논문.

10) 구마라집 역, 『묘법연화경』(『大正藏』 9, 44a). “佛說是諸菩薩摩訶薩得大法利時 於虛空中 雨曼陀羅華 摩訶曼陀羅華 以散無量百千萬億眾寶樹下 師子座上諸佛 并散七寶塔中師子座上釋迦牟尼佛及久滅度多寶如來 亦散一切諸大菩薩及四部眾”.

11) 玄奘, 『大唐西域記』(『大正藏』 51, 870a). “習學小乘教說一切有部”.

12) 줄거, 『서역불교교류사』, 서울:도서출판 해조음, 2011.

13) 寶唱, 『經律異相』(『大正藏』 53, 18a). “佛言 我法中學欲修福時 當勤精進 行六波羅蜜 護持十善 可得生天 向無上道”. 이와 같은 내용은 『灌頂經』 권6 과 『長阿含經』 권1이라는 점을 기술하여 그 출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장아함경』 권1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던 沮渠京聲에 의해 이루어진다.¹⁴⁾ 『미륵상생경』이 언제, 어디서 한역되었는지에 관해 고혜련의 경우 5세기 초 高昌에서 이 경전을 입수하고 번역 후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그리고 이와 같은 견해의 출처를 『출삼장기집』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저저경성의 『미륵상생경』번역과 관련된 기록은 『출삼장기집』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開元釋教錄』,¹⁶⁾ 『貞元新定釋教目錄』,¹⁷⁾ 『古今譯經圖紀』¹⁸⁾ 등에서 역경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 강희정의 경우 서역 지역에서 찬술된 위경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¹⁹⁾ 기록에 의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下生經 계통의 경전이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되는 일련의 예를 보았을 때 오히려 위경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기록상의 한역연대와 위경이라는 전제하에서 고려해본다면, 5세기 중엽 당시 기존의 신앙에 체계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량시대에는 둔황 인근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숫자의 석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석굴들은 기본적으로 천산남로 상에 위치한 구자국의 석굴과 상당수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 문제는 5세기 이전에 개착된 구자국의 석굴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구자국의 대표적인 석굴은 앞서 보았던 키질(Kizil, 克孜爾)석굴과 쿠무툴라(Kumutula, 庫木吐喇)석굴, 그리고 키질가하(Kizil-Gaha)석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키질석굴은 3세기 무렵에, 쿠무툴라석굴은 5세기 경 무렵부터 개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석굴군에서는 미륵보살이 벽화로 표현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미륵보살도솔천궁설법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에 관해 밝혀진 바는 없다.²⁰⁾ 다른 벽화에 비해 다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장면은 미륵보살이 많은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설법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장면을 경전 상에서 찾아보면 바로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과 『미륵상생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륵상생경』은 『정법화경』 및 『묘법연화경』번역 연대에 비해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양주 지역에서의 위경이라는 견해까지 나온 상황이다. 때문에 구자국의 석굴 벽화의 내용은 『법화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그 뜻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은 죽은 후 일천의 부처님께서 손을 주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므로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계신 곳에 태어난다. 또한 그 미륵보살은 서른

14) 강희정의 경우 저저경성에 의해 한역되었다기보다 서역지역에서 만들어진 위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의 새로운 모색』, 서울:학연문화사, 2011, pp. 70-71.

15) 고 혜련,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 서울:일조각, 2011, pp.32~33.

16) 智昇, 『開元釋教錄』(『大正藏』55, 595b).

17) 圓照, 『貞元新定釋教目錄』(『大正藏』55, 924c).

18) 靖邁, 『古今譯經圖紀』(『大正藏』55, 360c).

19) 강희정, 앞의 책, p. 74 참조.

20) 北京大學考古學系, 克孜爾千佛洞文物保管所 編著, 『新疆克孜爾石窟考古報告』, 文物出版社, 1997; 中國美術分類全集領導工作委員會, 『中國新疆壁畫全集:克孜爾』1-2, 1995; 新疆龜茲石窟研究所 編, 『龜茲』, 新疆美術攝影出版社, 2008. 등

두 모양을 잘 갖추고 큰 보살들에게 둘러 싸여 백천만억 많은 천녀들과 그 권속들이 있는 가운데 나온다.²¹⁾

위의 내용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미륵보살이 계신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내용은 훗날 『미륵상생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법화경』의 이 같은 내용은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석굴 내에서 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여 확인 가능한 미륵보살도솔천궁설법도의 도상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석굴명	굴 번호와 시기
키질석굴	77굴(3~4세기 중엽)
	171굴(5세기)
	38굴(4~5세기)
	17굴(6~7세기)
키질가하석굴	14굴(6~7세기)

표 2 구자국 석굴 미륵보살도솔천궁설법도

위의 석굴을 비롯해 북량석탑 등 초기 교각미륵 도상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는 진행이 되었다.²²⁾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 키질을 비롯해 초기 교각미륵보살에 대해 기존의 미륵보살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좌상이든 입상이든 인도나 간다라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물병을 들고 있는 도상학적 특징과 부합되지 않는 특이 점을 중국 내에서의 새로운 미륵보살상 도상이라 하고 있다. 게다가 북량석탑²³⁾에 나타나는 미륵상의 경우 교각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며²⁴⁾, 여기서도 물병을 들고 있는 형태의 미륵상은 찾을 수 없어 전통적인 미륵상과는 차별화되는 양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상화에 대해 단순히 새로운 미륵보살상의 도상이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불상과 보살상의 조상, 혹은 벽화의 조성에는 기본적으로 경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법화경』에 한정지어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자국의 초기 석굴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3세기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은 『미륵상생경』의 시기와 연관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근거를 『법화경』에서 찾을 수 있음은 지극히 관련성이 있었다고 해석할

21) 구마라집 역, 『묘법연화경』(『大正藏』9, 61b). “若有人受持 讀誦 解其義趣 是人命終 為千佛授手 令不恐怖 不墮惡趣 即往兜率天上彌勒菩薩所 彌勒菩薩 有三十二相大菩薩眾所共圍繞 有百千萬億天女眷屬”.

22) Alexander Soper, *Literary Evidence for Early Buddhist Art in China*, Artibus Asiae, 19, 1959 ; Harald Ingholt, *Gandharan Art in Pakistan*, NewYork:PantheonBooks, 1957 ; John Rosenfield, *The Dynastic Arts of Kushans*,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姜 玟廷, 「키질석굴의 <도솔천미륵설법도>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강 희정, 「北涼 石塔을 통해 본 橋脚彌勒 圖像의 傳來」, 『중앙아시아연구』9, 2004 등이 있다.

23) 북량탑의 경우 거의 대부분 420년에서 436년 사이에 조성된 소형탑으로 총 14구의 탑이 발견되고 있다.

24) 田弘塔의 경우 파손되어 볼 수가 없고, 沙山塔의 경우만 결가부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吉德塔은 입상의 형태인데, 이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11구의 탑에는 모두 교각미륵상이 발견되고 있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둔황 막고굴 초기 굴에 해당하는 275굴의 교각미륵보살상에까지 영향을 줌으로써²⁵⁾ 구자국에 한정된 법화신앙이 아닌 전파양식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미륵상생경』의 출현과 함께 문화적 발현의 다른 양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 변화는 양주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양주지역의 법화신앙

河西四郡, 즉 둔황 [敦煌;沙州], 주천 [酒泉;肅州], 장액 [張掖;甘州], 무위 [武威;涼州] 은 남으로는 기린산맥을 접하고 있는 자연 요새지로서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동서(東西) 경제·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군을 제외하면 산맥의 끝자락에 펼쳐진 평원으로 중국 내륙에 물자를 공급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때문에 河西走廊 지역은 초전기, 상인들을 비롯해 모든 불교경전과 승려들이 반드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중국 唐의 長安이 국제도시이자 불교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교 초전기에 하서주량 지역의 원활한 교류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 지역에서의 불교 수용이 곧바로 장안으로 이어지는 교두보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승려의 이동 및 선(禪)불교의 전개, 불교문화의 수용, 불교경전의 이동경로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문화가 형성되고 인도나 서역과는 다른 형태의 불교신앙 형태가 특히 석굴을 중심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장안불교의 탄생 직전까지 불교신앙 전개의 만개지였던 양주지역에서 특히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다루어 본다.

1. 이불병좌상의 출현

二佛並坐像은 중국 역사상 북위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조성되었는데, 탑에 석가와 다보여래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석가, 다보의 병좌상과 더불어 교각미륵보살이 동일 탑의 상층이나 중층에 함께 조성됨으로써 일렬배치의 형태를 좀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시대 후반기로 갈수록 이불병좌상이 단독으로 조성되는 예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불병좌상이 조성되는 근거는 『법화경』의 「견보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석가모니불께서 오른 손가락으로 칠보 탑문을 여시니, 큰 성문의 자물쇠가 풀리어 열리는 것과 같이 큰 소리가 났다. 그 때 거기 모인 모든 대중들은 보배탑 안의 사자 자리에 산란치 앉으시고 선정에 드신 다보여래를 보며, 또 그의 음성을 듣고 ‘거룩

25) 이에 관해 배 진달의 경우 275굴을 『미륵상생경』의 내용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275굴의 경우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그 조성시기를 잡고 있다. 때문에 저거경성이 번역하는 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불상이므로 이는 구자국의 교각미륵보살상과 동일선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중국의 불상』, 서울;일지사, 2005, p. 71)

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불께서 이 법화경을 쾌히 설하시니 이 경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이르렀노라'고 하였다. …그때 보배탑 가운데 계신 다보불께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불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불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자 곧 석가모니불께서 그 탑 가운데로 드시어, 그 반으로 나눈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시었다.²⁶⁾

「견보탑품」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형상화한 결과로써의 이불병좌상은 특히 중국 북위시대 무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하서사군이 자리잡고 있는 양주지역에는 돈황 막고굴, 유림굴, 문수산 석굴, 금탑사 석굴, 마제사 석굴, 천제산 석굴, 병령사 석굴, 맥적산 석굴 등 수많은 석굴이 현존하고 있다.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	석굴 명
돈황 [沙州]	막고굴, 유림굴
주천 [肅州]	문수산 석굴, 금탑사 석굴
장액 [甘州]	마제사 석굴(천불동·마제북사)
무위 [涼州]	천제산 석굴
난주·천수	병령사 석굴, 맥적산 석굴

표 3 하서사군 내 석굴 분포도

이 가운데 돈황 막고굴의 경우 254, 257굴과 259굴은 북위시대 조성된 석굴로 이불병좌상이 주존으로 봉안된 곳이다. 북위시대, 이불병좌상은 지역별로 상당수 조성되고 있다. 이는 『魏書』 「釋老志」를 기초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²⁷⁾ 기사굴산은 곧 영취산이며, 『묘법연화경』의 설법장소이며 동시에 「견보탑품」의 내용에 부합되는 장소이기도 한 곳이다. 때문에 이곳에 봉안된 불상을 이불병좌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위 시대 초기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돈황 막고굴 경우에도 이불병좌상이 출현하게 되는데, 물론 기존의 미륵보살상도 여전히 조성되는 것은 분명하다. 복합적인 구조로 법화신앙을 표현하였는데, 양주 지역에서는 특히 이불병좌상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돈황 막고굴 초기굴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무위에 위치한 천제산 석굴에서도 이불병좌상을 찾을 수 있다. 이곳 역시 북위시대 때 조성된 132굴은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이불병좌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 불상을 제외한 나머지 벽화부분은 모두 명나라 때 덧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천제산 석굴의 경우 무위보다 동쪽에 위치한 병령사 석굴

26) 『妙法蓮華經』 「見寶塔品」 (『大正藏』 9, 33b-c). “於是釋迦牟尼佛 以右指開七寶塔戶 出大音聲 如却關鑰開大城門 即時一切眾會 皆見多寶如來於寶塔中坐師子座 全身不散 如入禪定 又聞其言 善哉善哉 釋迦牟尼佛 快說是法華經 我為聽是經故而來至此 … 爾時多寶佛 於寶塔中分半座與釋迦牟尼佛 而作是言 釋迦牟尼佛 可就此座 即時釋迦牟尼佛入其塔中 坐其半座 結加趺坐”

27) 水野清一, 「魏書釋老志の耆闍崛山殿」, 『支那佛教史學』, 6-1, 1941 ; 『中國の佛教美術』, 東京:法藏館, 1968, pp. 336-344.

개착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바로 132굴에 안치된 열반상의 위치이다. 보통 열반상은 중심주굴 후실에 안치되는데, 이곳 천제산 석굴의 경우 입구 바로 윗부분에 조성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유는 석가불 열반을 표현할 때 머리의 방향을 천제산의 위치와 함께 고려함으로써 후실에 두지 않고 머리가 동쪽을 향할 수 있도록 주실 입구 윗부분에 안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천제산과 병령사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두 석굴의 개착이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단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천제산 석굴의 영향 하에 조성되었을 병령사 석굴에서는 이불병좌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불감이나 안으로 깊이 파들여간 석굴에서도 이불병좌상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석굴 최초 조성기록이 남아있는 병령사 169굴에는 建弘年間(420~428) 전후의 불교 신앙사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곳에서도 이불병좌상이 보이고 있다.

천수지역에 위치한 맥적산 석굴은 북위시대 조성되기 시작해 후대에 이르기까지 막고굴이나 여타의 석굴과 동일하게 조성된 석굴이다. 이곳에서는 이불병좌상을 얼마나 조성했는가에 대해 현재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133굴에 보존되어 있는 북위시대 비석에는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고행의 장면	이불병좌상	사유의 장면
탄생의 장면	교각미륵보살상	도솔천 하강 장면
연등불 수기의 장면		성도의 장면

표 4 북위 조성 비석 내용도표

이러한 상·하 복층구조는 운강석굴이나 공현석굴 등의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다른 석굴에서 나타나는 복층구조에서 주로 교각미륵보살상이 상층, 이불병좌상이 중층에 배치되는데 비해 맥적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반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중국 내부에서 범화신앙이 전개되는데 있어 그 방식은 매우 자유로웠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른 시기 한역되었던 『법화경』을 토대로 완성되었던 교각미륵보살상이 아닌 이불병좌상으로 대체되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흔히 涼州로 불리던 이 지역의 불교신앙에 관해서는 『魏書』 「釋老志」에서 “양주지역은 장제 이후로 불교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⁸⁾ 즉, 4세기 초반 前涼의 장제 이래로 불교는 대중적인 신앙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륵보살조상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위시대를 기점으로 점차 二佛並坐像의 조성으로 문화적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북위가 돈황을 점령한 시기는 442년이다. 북위의 돈황 점령 이후 개착된 대표적인 석굴로는 앞서도 언급했던 259, 254, 257 등의 석굴을 들 수 있다.²⁹⁾ 이 가운데 259굴 중심탑주 정

28) 『魏書』 권 114 “涼州自張軌以來 世信佛教”.

29) 樊錦詩, 馬世昌, 關友惠, 「敦煌莫高窟北朝洞窟的分期」, 『中國石窟 敦煌莫高窟1』, 敦煌文物研究所編, 文物出版社, 1981, pp. 177-189.

면의 불감에는 이불병좌상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인데, 막고굴 내에서는 처음 확인되는 예이다.

뿐만 아니라 소형 불상 조성에 있어서도 이불병좌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는데, 이들에는 모두 명문제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北京 首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태화8년(484)명 金銅觀音菩薩立像”이나 태화 9년명 금동관음보살입상을 비롯해 네즈미술관 소장 “태화13년(489)명 이불병좌상”은 북위시대 법화신앙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초이다. 또한 공현석굴 등에서는 추선공양의 의미가 담긴 명문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법화신앙에 의거한 본격적인 추선공양도 시작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의 양주점령 시기와 저거경성에 의한 『미륵상생경』 번역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미륵보살상이 주로 법화신앙을 대표하는 문화현상이던 것이 북위에 의한 중국 북방의 통일과 불교신앙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이불병좌상으로 대체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화경변상도의 유행

경전의 내용을 근거로 한 변상도의 출현은 중국 隋·唐시대에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물론 그 이전에 구자국에서 본생고사의 내용을 벽화로 조성한 예도 일종의 변상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경전 가운데 일정 부분 혹은 하나의 품을 표현하는 경변상도는 수당시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할 수 있겠다.

현재 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돈황 막고굴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막고굴 내의 『법화경』을 근간으로 하는 변상도는 대략 총309굴에 이르고 있다. 경변 형성의 비교적 이른 시기라 볼 수 있는 수나라 때는 주로 「序品」(420굴), 「譬喻品」(419, 420굴), 「見寶塔品」(276굴), 그리고 「觀世音菩薩普門品」(303, 420굴)에 집중해 형성되었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품」(331굴), 「견보탑품」(68, 202, 331, 332, 335, 340, 341굴), 「제마달다품」(331굴), 「종지용출품」(331굴), 「묘음보살품」(331굴)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初唐시기의 이러한 현상은 盛唐, 中唐, 晚唐시기에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오대시기, 송대까지 꾸준히 법화경변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견보탑품」의 변상도이다. 반대로 「授學無學人記品」과 「勸持品」의 경우는 각기 오대시기에 한번씩 조성하고 있다.

돈황 막고굴 420굴의 천장 동측면에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이 벽화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공경을 받으리라.³⁰⁾

30)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大正藏』 9, 57a). “若有女人 設欲求男 禮拜供養觀世音菩薩 便生福德 智慧之男 設欲求女 便生端正有相之女 宿殖德本 眾人愛敬”.

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보문품」 상에 나타나는 많은 에피소드가 형상화되는 예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내용을 형상화시키는데 있어 용이함과 한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편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점을 이용해 수나라 때까지는 품별 형상화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당나라의 것과 비교했을 때 완벽한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이 단편적인 것을 시작으로 벽면 전체를 등분하여 각기 다른 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는 당시대에 들어서면서 찾아볼 수 있다.

초당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31굴의 동쪽 측벽은 상·중·하로 총 3등분하여 경변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상층은 중앙에 다보탑을 조성하고 그 안에 석가다보가 결가부좌한 자세로 앉아있는 내용으로 「견보탑품」을 변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층은 “법화회”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서품」에 해당된다. 하층³¹⁾은 관세음보살이 받은 영락을 돌려 나누어 석가모니불과 다보불탑에 바치는 장면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³²⁾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변상도를 구조화시키고 경전상의 각 품별 특징적 내용을 조직적으로 엮는 작업까지 완성시키는 시기인 셈이다.

초당시기를 넘어가면 벽면 자체를 하나의 『법화경』으로 형상화시키는 예도 찾을 수 있다. 331굴과 같이 구획에 각 품을 변상도로 표현한 것에 비해 각 품을 서로 어울리게 배치함으로써 경전 자체를 심어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 석굴도 나타난다. 231굴의 경우 총 19품을 배치하였는데, 331굴과 같이 3단 구조가 아니라 2단 구조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관세음보살보문품」만을 단독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상단에는 따로 구획을 나누지 않고 다만 중앙에 원형구도로 볼 수 있는 구역에 「서품」, 「제바달다품」, 「중지용출품」, 「방편품」이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원형구도 이외의 구역에는 다시 「서품」이 한차례 등장하고, 「신해품」, 「약왕보살본사품」, 「안락행품」, 「비유품」, 「여래수량품」, 「견보탑품」, 「다라니품」 등이 중앙 원형구도를 꾸며주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불교사상 및 신앙이 최고조에 이르는 당나라 때에는 아미타불을 비롯한 다른 불상의 조성 및 내용도 풍부해지지만, 『법화경』을 기본으로 하는 석굴 벽화가 상당수 차지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존재했던 법화신앙이 40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발전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IV. 맺는말

신앙의 대상은 시대별로, 지역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은 각기 시대상황에 맞춰 신앙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 모두 경전 상에 등장하며, 특정 경전 가운데서도 일부분이 특별히 형상화되는

31) 施 萍婷, 賀 世哲의 경우 331굴의 하층 내용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기는 하지만 이의 근거를 「妙音菩薩品」으로 보고 있어 차이점이 있다.(「敦煌壁畫의法華經變について」, 앞의 책, p. 19참조)

32)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大正藏』 9, 57c). “受其瓔珞 分作二分 一分奉釋迦牟尼佛 一分奉多寶佛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경전별 신앙의 형상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법화경』은 초기 경전이면서 동시에 여타의 대승경전보다 문화적으로 형상화시키기 적절한 요소가 많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법화신앙에 대해서는 탑신앙, 경전의 사경, 수지독송 등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문화적 형상화라는 부분을 통해 시대별로 혹은 지역별로 발전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역지역 특히 천산남로 상에서는 『법화경』 유행과 함께 석굴 조성시 경전의 내용이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법화경』에 입각한 불교문화 조성이 서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미륵상생경』이 5세기 중후반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법화경』에 입각한 도솔왕생 신앙이 존재했고, 이는 주로 서역 불교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륵상생경』의 등장은 기존의 미륵보살 형상화는 이불병좌상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불병좌상 조성은 본격적인 추선공양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별로 법화신앙의 형상화는 차별화가 존재하지만, 다른 신앙의 발전에 밀거름이 되는 역할을 했음은 시대적 발전양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출가자가 아닌 집단에서의 보살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발현시키는 집단 역시 발원이 기본 배경이며, 더 나아가 경전의 내용을 최대한 시각화시킴으로써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중을 위한 수행의 차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인도에서도 존재했으나 동아시아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견고한 신앙에 근간을 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